<인간을 넘어선 인간?-포스트휴먼에 대한 여섯 개의 강의> 제1강

포스트휴먼, 인간의 확장과 인간의 종말 사이

이 진 경

0. 휴머니즘

인간의 경계를 묻는 질문들을 통해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아마도 포스트휴먼이란 말은 그런 사태를 지칭하는 것일 게다. 그것은 인간 아닌 것들마저 인간 안에 추슬러 담는 또 다른 휴머니즘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휴머니즘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일까? 인간이 인간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생각하면, 휴머니즘의 식민주의적 팽창에 대해 낙관하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다. 인간은 정말 인간을 벗어날 수 있을까? 답보다 중요한 건 이런 물음을 견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기계나 기술에 대한 입장은 아주 상반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휴머니즘과 그것의 연장으로서의 생기론, 생명사상 같은 것으로 기계와 기술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근심하면서 '좋은 인간'과 '나쁜 기계/기술'을 대립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계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펼쳐질 세계의 새로움을 찬양하는 것이다. 전자가 대개는 유기체론이나 생기론의 연속선상에 있다면, 후자는 기계론과 연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후자가 기계론의 입장에서 생기론을 비판할 때조차, 휴머니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아니 정확하게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기계나 기술은 나쁜 게 아니며, 인간을 위해 '좋은'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기계나 기술에 대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가를 때, 그 기준은 언제나 '인간'이 될 것이며, 그런 한에서 가르는 구체적 이유가 무엇이든 대개 휴머니즘을 지반으로 하고 있다. 기계나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종말'과 포스트휴먼의 탄생을 예견하는 경우에도 이로부터 자유롭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종말이란 유기체적인 인간의 종말을 뜻할 뿐이며, 포스트휴먼이란 그 이후에 도래할 새로운 인간의 형상이 된다면, 포스트휴먼이라는 개념은 기계에 의해 확장된 인간의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 개념의 식민주의적 확장'이란 이처럼 모든 것이 인간의 일부가 되고, 인간의 기관/도구(organ)이 되는 사태를 뜻한다.

중요한 것은 기계나 기술에 대해 긍정하는가 여부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이고, 인간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 그 관계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이란 기준에 의해 배제되고 비가시화된 것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기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다시 사유하는 것이다.

1. 포스트휴먼의 '세계'

-휴먼에서 포스트휴먼으로: 인간이란 고립된 존재자, 자립적 주체가 아니라 항상-이미 특정한 세계 속에 존재하며 그 세계의 규정성 속에 있다는 의미에서 '세계-내-존재'라는 하이데거의 말을 비틀어 표현하자면, 포스트휴먼 또한 나름의 세계 속에 있는 '세계-내-존재'일 것이다.

-어떤 세계가 휴먼을 포스트휴먼으로 만들었나?: 인간의 본성을 이룬다고 간주되던 것들이 인간의 신체나 영혼으로부터 탈영토화되는 사태.

컴퓨터의 발전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지적 능력; 이를 통해 인간의 능력을 초과할 지도 모를 기계의 발전(그에 대한 공포)

eg.<터미네이터>나 <트랜센던스>, 혹은 <허> 같은 영화들에서 보여지는 세계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본질적 요소들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파악과, 유전공학적 변조, 생명 산업적 생산

eg,온코마우스, 복제양 돌리, 혹은 <블레이드 러너>나 <아일랜드>, <문> 같은 영화에서 서술되는 세계

-->근본에서는 생명에 대한 두 방향에서의 시뮬라티오 내지 에뮬라티오: 생명에 대한 기계적 분석의 발전(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과 기계에 대한 생명과학적 정의(사이버네틱스와 인공생명)

--포스트휴먼의 문제는 단지 휴먼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자체의 위상이나 의미에 대한 근본적 위기 속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사태, 새로운 '세계'의 문제다.

2. 역설: '플라톤적' 문제들

1) 복제와 모방의 역설

기계화와 모방:

숙련의 탈코드화였다는 점에서 결코 단순한 모방은 아니었던 모방. 변조를 통해 최대한 인간의 육체적 움직임에 가깝게 하려는 플라톤주의적 모방!

-->이러한 모방이 인간의 위상을 위협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과 불안.

a) 18세기말 이후 산업혁명이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기계화하기 시작했을 때, 인간의 몸을 대신할 뿐 아니라 훨씬 강력하고 탁월하게 대체해가는 기계들 앞에서 느꼈던 불안이 흔히 '소외'라는 말로 표현되어왔다.

b) 20세기 후반 이후 정신노동의 기계화를 위한 연구들의 발전과 컴퓨터, 인공지능의 발전(eg.수학프로그램 '마테마티카')는 인간지능을 최대한 가깝게 시뮬레이션하려는 또 하나의 플라톤주의적 모방기획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지 모른다는 또 다른 불안의 원천이기도 했다.

-->사이버네틱스의 창안자 노버트 위너조차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모방하고 시뮬레이트하면서도 기계는 인간과 다르며 인간의 지적 능력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언표하고 증명하려 하는 이유.(eg.로저 펜로즈와 <황제의 새 마음>):

이는 인간보다 열등한 기계라는 발상을 통해 인간 아닌 기계를 '차별'하는 논리적 이유를 제공해주고, 원본보다 열등한 복제라는 철학적 명제를 정당화해주는 플라톤적 이원론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인간보다 못할 거라면 굳이 복제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복제는 항상-이미 원본을 초월한다.(이는 산업혁명 당시 기계로부터 기억장치, 계산능력 등까지 일관된다).

2) 인공지능과 인간

-->튜링 테스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와 인간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기계는 인간과 같은 지적 능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인간은 어떤 지점에서 기계와 다를 수 있을까?(인간이 기계보다 아직 잘 하고 있는 게 무얼까?)

eg.감성적이고 지각적 차원의 패턴화?(커즈와일)

eg.창조력(펜로즈): 괴델의 정리는 인간의 창조력을 기계와 구별하도록 해주는가?

eg.거짓말(추론된 것이나 아는 정보와 다른 것을 말할 능력)

eg.시적 상상(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대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들리는 것을 듣지 않고 대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능력)(cf.쟝-뤽 고다르 <알파빌>)

3) 인공지능과 인공생명

인공지능과 인공생명의 근본적 차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할 뿐 아니라, 인간의 지능에 의한 계산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인공생명은 '창발'을 본질로 하는 생명의 특징이 일차적이다. '창발'이란 프로그램되지 않은 어떤 '질서'나 패턴의 출현이고 그것을 통한 독자적 작동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인간의 의지에서, 계산과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왜 로보틱스 연구자들은 인공생명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로드니 브룩스가 배척받았던 근본적 이유였을 것이다). 인간의 손 밖에 벗어난 로봇이란 로봇을 만들려는 인간의 합목적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3. 역설: '데카르트적' 문제

포스트휴먼이란 말로 요약되는 사태를 가속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 기계화를 통해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확장해가려는 기획이다. 한편에선 과학적 관심에서, 다른 한편에선 통제와 착취를 위한 권력과 자본의 관심에서 추동되는 기획.

이는 기계화에 따라 인간 개념의 외연에 대해, 혹은 그것의 내포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1) 개인의 외연

개인의 경계, 인간의 경계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a)신체의 경계

케빈 워릭의 개조된 사이보그 신체와 그것의 작동(케빈 워릭,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가?>)

-->워릭의 개조된 신체에서 신체적 외연을 표시하는 신체의 경계는 어디인가?: 가령 런던의 워릭이 인터넷을 통해 뉴욕에 있는 인공적 손을 움직였다면?: 신체 내부에 심은 칩 직전? 혹은 피부 안에 들어있는 것은 모두? 그렇다면 신경망과 연결된 통신망은? 뉴욕의 인공선은?

--신체의 경계를 규정하는 것은 신체 아닌 정신의 작용범위이다?(그렇다면 칩 대신 단말기를 이용해 뉴욕의 인공선을 움직였다면? 앞서와 다를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역으로 사이보그의 개념이 여전히 개체의 피부로, 정확히는 유기체로 규정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넘어서는 순간, 사이보그는 개인의 유기체를 넘어 '일반화'될 수 있게 된다.)

b) 영혼의 경계

워릭은 초음파를 감지하여 전기신호로, 신경신호로 전환하는 칩을 사용하여 초음파 신호를

포착할 수 있었다. 이 때 그의 영혼은 입력된 초음파를 포함하는가? 그 신호에 따른 판단이나 그렇게 판단하는 영혼은 확장된 그의 영혼인가? 그렇다면 초음파 감지장치는?

-->이러한 변화는 흔히 말하듯, 인간의 영혼과 신체의 확장인가? 반대로 기계에 의한 인간의 영혼과 신체의 잠식인가?(아마도 유용성이나 선택이란 특징을 주목하면 확장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잠식이라고 할 것이다. 확장이란 잠식이란 개념 자체가 인간에 대한 유용성이라는 휴머니즘적 전제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cf.경계의 문제는 판단하는 장소와 동작하는 장소의 외연적 거리가 아니라 개체화의 범위고 개체화에 관여하는 요소들이다. 개체화에 말려들어오는 것에 의해 달라지는 개체의 존재와 성격이다.(스피노자적 대답인 셈이다).

2) 신체와 정보의 문제

a) '신체 없는 정보'는 가능한가?

eg.<트렌선던스>에서 과학자의 영혼의 '업로드'/다운로드

eg.<공각기동대>에 등장하는 의체의 자유교환가능성, 혹은 고스트의 이민)

cf.<공각기동대>의 쿠사나기가 평소와 다른 것으로 의체를 바꾸었을 때, 그의 고스트는 어떤 변화도 없이 그대로일까?(우리는 옷을 다르게 입거나 병이 들어 신체적 활력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고스트 상에 변화가 옴을 느끼지 않는가? 만약 쿠사나기가 남자의 의체를 장착했다면 어떻게 될까?)

-->포스트휴먼 담론이나 사이보그 담론의 관념론적-정보이론적 일면성 아닐까? 이는 사실 서구의 오랜 의식중심적 관념론전 전통의 연속(데카르트주의)!! (영혼이 그대로라면 신체가 달라져도 같은 사람이고 달라질 게 없을 거라는....: 그러나 영혼이 빙의한 신체가 장애인의 신체였다면?)

b) 정보 없는 신체의 불가능성과 신체 없는 정보의 무의미성:

분자적 식(識)과 식의 존재론은 정보 없는 신체, 데이터 없는 살의 불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대로 신체적 생존의 코나투스, 생명력은 식이나 정보의 산출이유가 생존임을 보여주며, 생존을 위한 행의 일차성이 식을 산출하고 정보를 선별하며 산체의 지속에 필요한 양상으로 인식을 구성함을 보여준다.

물론 정보니 인식은 신체와 분리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른 것이다. 신체 없는 식은 신체와 결부된 식과 다른 것이다. 의식이나 인식, 사유란 생존을 위한 판단작용에 기인한다.

cf.유전정보는 뉴클레오티드라는 물질성을 통해 전달되고 작동한다. 유전정보는 아미노산이란 물질성 없으면 단순한 알파벳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84개의 코돈과 20개의 아미노산의 간극은 유전정보의 차이가 물질성 안으로 들어가는 한에서만 유의미함을 보여준더. 유전형과 표현형의 간극도 그렇다.

진공관과 실리콘의 차이, 진동이 직접 만드는 신호와 디지털신호의 차이--디지털 신호는 그 다시 물질적 진동으로 변환하지 못하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또 같은 디지털 정보도 종이를 울리는지 플라스틱을 울려 만들어내는지,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울려 만드는지에 따라 다른 소리가 된다!

-->다시 스피노자적 대답: 신체와 영혼의 평행론은 달라진 신체가 달라진 영혼을 가질 것임을 의미한다: 문제는 정보의 소통만이 아니라 신체적 리듬이 형성하고 작동시키는 신체적 개체화의 고유한 움직임이다. 즉 정보적 소통과 신체적 리듬은 개체화를 가능하게 해주고 유효

하게 작동하게 해주는 두 가지 과정이다: 이것은 정보 내지 정신을 통해 신체나 기계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는 데카르트적이고 서구 전통적인 관념, 그리고 그런 사유하는 영혼을 본질로 하는 인간이라는 휴머니즘적 관념과 반대로, 신체에 의해 영혼이 재구성됨을, 기계에 의해 정신이 잠식됨을 뜻한다.

4. 난점: 외부성의 문제

생명복제는 복제하려는 인간의 합목적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렇게 복제된 것이 생명이라면, 그것은 필경 복제한 인간의 목적성에서 벗어나는 '외부성'을 갖는다. 즉 생명복제는 필경 애초의 합목적성에서 이탈한다. 이러한 외부성, 혹은 타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생명복제에서 가장 일차적인 문제다.

이는 사실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는 생식에서 언제나 발생하는 문제다(생식은 인공수정을 포함하여 생명복제가 행해지는 일차적이고 특권적인 영역이다!!). 복제되어 탄생한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외부성, 타자성을 갖는다는 것.

eg.<블레이드 러너>에서 주어진 자리를 이탈하는 리플리컨트들의 문제(re-pli-cant는 다시 접은 것이고, 이미 처음부터 다른 주름을 가진 다른 주체다. 생명은 이런 독자성과 창발성을 그 본질로 한다.)

eg.<네버 렛 미고>에서 복제생명체들의 타자성을, 외부성 문제.

-->'생명윤리'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 생명이 신의 영역에 속한다는 식의 신학적 입장은 물론, 실험에 제공되는 요소의 인간적 문제 등은 모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문제다. 일차적인 것은 이 타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타자성이란 역시 예측불가능성이고 통제불가능성이며, 합목적성에 반하는 것이다.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복제하려 할까?

5. 포스트휴머니즘에서 존재론적 평면화로.

1) 포스트휴먼에 대한 사유가 휴머니즘 벗어나려면?

이상에서 본 것처럼, 포스트휴먼 담론을 산출한 세계는 과학기술 발전의 선상에 자리잡고 있으며, 거기서 연유한 것이란 점에서 계산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을 본질로 하고 인간적인 합목적성과 유용성에 따라 방향지워져 있다. 그것이 휴머니즘적이라면 이런 의미에서다.

-->종차별주의 비판처럼 단지 인간의 특권적 지위를 비판하는 것만으론 안된다. 기계나 복제에 대한 부정인지 긍정인지, 반대인지 찬성인지를 말하는 식의 입장은 너무 소박한 것이다. 포스트휴먼에서도 여전히 잔존하는 '휴먼' 자체가 소멸하는 지점, 그 소멸로부터 재탄생해야 하는 지점으로까지 가야 한다.

현재의 기술로부터 외삽하여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를 사유하는 지평을 연장할 뿐이다. 오히려 이전으로, 프리휴먼으로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야 한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으로, 동물로, 미생물로....

생명복제나 지능적 기계, 사이보그 등의 기술적 발전으로부터 추론되는 미래학/미래상에서 벗어나서, 휴먼 자체를, 기계와 생명 자체를 다시 사유해야 한다: 프라휴먼과 포스트휴먼, 휴먼이 우열 없고 심연 없는 하나의 평면 상에 놓여야 한다. 인간을 특징지어준다고 믿어지는 성질이나 본성 같은 것을 프리휴먼의 수준에서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

-->‘평면화’의 방법: 모든 것을 하나의 평면 위에 놓고 그 위에서 형성되는 내재적 관계에 따라 그 차이를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

2) 평면화

a) 인간과 기계의 평면화: 기계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도구일반이고, ‘제어와 통신’은 특별한 장치가 아니라 결합된 신체의 일부에서 작동하는 종합활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이보그란 기계/도구와 결합된 유기체고, 최초의 사이보그는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b) 생명과 기계의 평면화: 세포란 화학적으로 작동하는 기계고, 생명이란 국지적인 엔트로피 감소를 동반하는 창발적 순환계를 뜻하며, 기계란 어떤 흐름을 절단하고 채취하며 작동하는 모든 것이다.

c) 생물학적 평면화: 모든 생물은 박테리아의 군체다.

d) 인식론적 평면화--‘인식’이란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 내지 영혼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식물들이 보여주듯, 영혼은 물론 기관 없는 식이 존재한다.(혹은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영혼을 갖는다!). 기관 없는 식은 분자적인 식으로까지 내려간다.

영혼은 신체가 인지한 만남의 산물이며, 그 신체는 기관이나 세포 내지 세포 이하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분자적 ‘식(識)’의 산물이다.